

# 광주시 행정서비스 클라우드 구축 통합 제공

##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

## 행안부 시범사업 국비 79억 확보

## 각 기관 정보 한 곳서 검색·인용

광주시가 분산된 소규모 전산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해 행정 서비스와 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혁신에 나선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5개년 중장기 계획으로 클라우드 기반 조성 목표를 '행정은 똑똑하게 시민은 행복하게'로 정하고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전환 ▲전문적인 클라우드 운영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이 조성되면 시민은 온라인으로 한 곳에서 정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는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행정은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시정 운영 등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운영비 절감 효과 등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에 우선 클라우드 기반 특화된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민 수요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정보서비스를 발굴·추진한다.

시는 클라우드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도출된 ▲홈페이지 통합 구축을 통해 각 기관의 제반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스마트워크 체계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는 가상데스크톱 서비스 ▲그룹웨어·대관 업무 등 산하 기관의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시는 또 클라우드컴퓨팅 환경 전환을 통해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광주시 30여 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통적인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으로 이전·통합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모델 시범사업으로 국비 79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각 기관에서 개별 운영하는 70여 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설계·전환해 이달말까지 마

무리하고 나머지 시스템도 단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광주시에 앞으로 체계적인 클라우드 전환 가이드를 마련해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운영 및 관리 체계를 통합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클라우드 자원은 데이터 행정의 핵심 인프라로, 국정과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기존 정보기술(IT) 관리 체계를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한 광주클라우드는 국가AI데이터센터의 지역거점 클라우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경제청 공모사업 선정 혁신생태계 조성 속도낸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3년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혁신 성장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할 목적으로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광주경제청은 2024년까지 2년간 총 8억원(국비 5억6000만원, 시비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제자유구역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한다.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분야에선 지역 혁신기관 상생협력 협의회 구축, 입주기업 협의회 운영,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을 추진한다. 입주기업 역량 강화 분야에선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 및 사업화 지원, 입주기업 R&D 기획 특화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핵심전략산업 융복합 R&D 기획 지원 등이 추진된다.

기업지원 사업은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입주기업 대상 보육형기업(업력 7년 미만), 성장형기업(업력 15년 미만), 성숙형기업(업력 15년 이상)으로 세분화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광주경제자유구역 독자적으로 '창업-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기업별 전담 PD 제를 도입해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목표다.

광주경제청은 사업 주관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와 참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12월부터 겨울철 4개월간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오는 12월부터 겨울철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부의 미세먼지 사전 관리 강화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에 "12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4개월)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1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해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매년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전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에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미세먼지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 계절관리기간에도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시 모성보호 지원 더 촘촘해진다

### 권리구제 강화·지원단 운영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효과적인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모성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앞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장인 부모의 모·부성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무상담을 총 2193건 진행했다.

노무상담 이후 인사·복무규정 등 취업규칙 또는 노동 관행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면 심층 상담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해고·임금 삭감 등 근로계약상 불리한 처우가 확인되면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상담·전문상담·권리구제는 모두 무료로 지원된다.

특히 올해는 예산을 확대해 직장인 부모의 권익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에 주소를 둔 월 소득 300만원 미만 직장인 부모가 권리구제지원을 신청하면 직장인 부모를 대신해 사업주와의 면담·협의 등 사전 조정부터 노동청 신고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협력 노무사가 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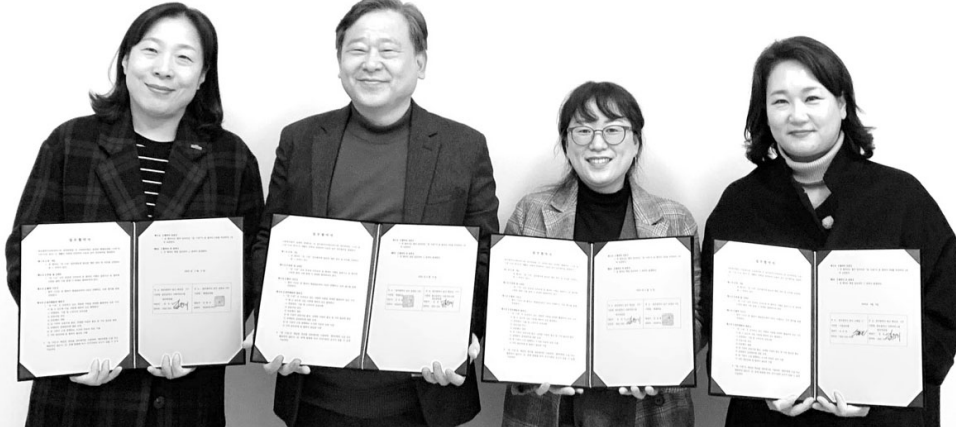
또 권리구제지원단을 신규 운영해 촘촘하고 효과적인 모성보호 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권리구제지원단은 노동사건 전문노무사·학계 전문가·노동사건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하고, 촘촘한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정책 발굴을 맡는다. 발굴된 정책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광주지역 육아휴직 및 모성보호제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직장인 부모가 마음 편히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희망원, 3개 기관과 복지증진 업무협약



광주시사회서비스원 광주희망원(원장 김운기)은 최근 벨엘요양원(원장 김경아), 벨엘타운(원장 김성운), 이일성노원(원장 손은진) 3개 시설 노인복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들 기관은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 상호교환, 공동사업 추진, 공동행사 개최, 경영현안에 대

한 조력, 도서와 자료 상호 이용 등에 합의했다. 광주희망원 김운기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노인복지기관들과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프로그램 공유와 서비스연계를 통해 긴밀한 협력과 노숙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 노인일자리포털 서포터즈 모집

## 26일까지 19~34세 청년 16명

광주시에 "노인일자리 현장과 정보를 취재해 홍보하는 '노인일자리포털 제1기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노인일자리 현장을 취재 홍보하고, 지역 노인일자리 정보 공유와 확산에 앞장서는 게 목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 거주 만 19~34세 청년 또는 광주지역 대학교와 대학원에 재(휴)학 중인 학생이면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며, 총 16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청년 서포터즈는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1월까지 8개월 간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자치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사업단 탐방·취재,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백서' 발간

### 추진과정·성과 등 담다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광주 도심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축적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 '2022년 광주 도시재생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도시재생백서는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 네 번째 발간이며, 도시재생사업 현장에 실무적인 도움을 주고자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추진과정, 부문별 주요성과와 향후계획, 현장의 목소리 등 사업 노하우와 경험을 기록해 공유하고 있다.

연도별 백서 내용을 요약하면 2019년 백서는 광주시 자체사업을 포함한 광주 도시재생사업의 발자취를 집대성했고, 2020년 백서는 뉴딜사업 중

심으로 '문화·살터·일터' 등 유형화해 사업계획과 주요 변화상을 담았다. 2021년 백서는 사업별 거점시설 소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및 사진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백서는 매년 전국단위 도시재생행사(도시재생조 한마당, 도시혁신 산업박람회)와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200여 곳에 배포되고 있다.

이번 2022년 광주 도시재생백서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을 바탕으로 사업 진행과정과 노하우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백서발간에 착수해 9~11월 전문가 원고 작성 및 디자인 편집 등을 거쳐 지난 2월 발간했으며, 이달 초 자치구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현장활동가, 유관기관 등 관내 도시재생 관계자를 비롯한 전국 광역·기초센터에 배포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2 광주 도시재생 백서 표지 이미지. 표지에는 '2022 광주 도시재생 백서'라는 제목과 함께 도시 재생을 상징하는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다.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캠페인 이미지. 중앙에는 놀라워하는 표정의 남자와 걱정하는 표정의 여자가 있고, 그 둘은 의료 과소비를 주제로 한 리플릿을 들고 있다. 배경에는 병원 환경과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보인다. 상단에는 손해보험협회 로고와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라는 문구가, 하단에는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